



손쉽고 빠르게  
집밥 '똑딱'  
K-소스 글로벌 공략  
니



Life

K-제약·바이오  
중동·북아프리카  
흐름에 발 맞춘다  
L2



# 귀성길 9일 오전 가장 막힌다... 서울~부산 9시간 10분

국도교통부, '특별교통대책' 시행  
귀경길은 설 다음날 오후 집중 예상  
연휴기간 모든 차량 통행료 면제

올해 설 고속도로 귀성 소요시간은  
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서울~부산이 9  
시간10분가량 될 것으로 예측됐다. 귀  
성은 설 전날인 오는 9일 오전, 귀경은  
설 다음달인 11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  
로 전망된다.

국도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 
5일간을 '특별교통대책기간'으로 정하  
고,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 
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'설 연휴  
특별교통대책'을 시행할 계획이다.

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 
따르면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 
2852만명, 하루 평균 570만명이 이동할  
것으로 예상된다. 가운데 92%가 승  
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.

고속도로 최대 귀성 소요시간은 승용  
차를 이용할 경우 서울~부산 9시간1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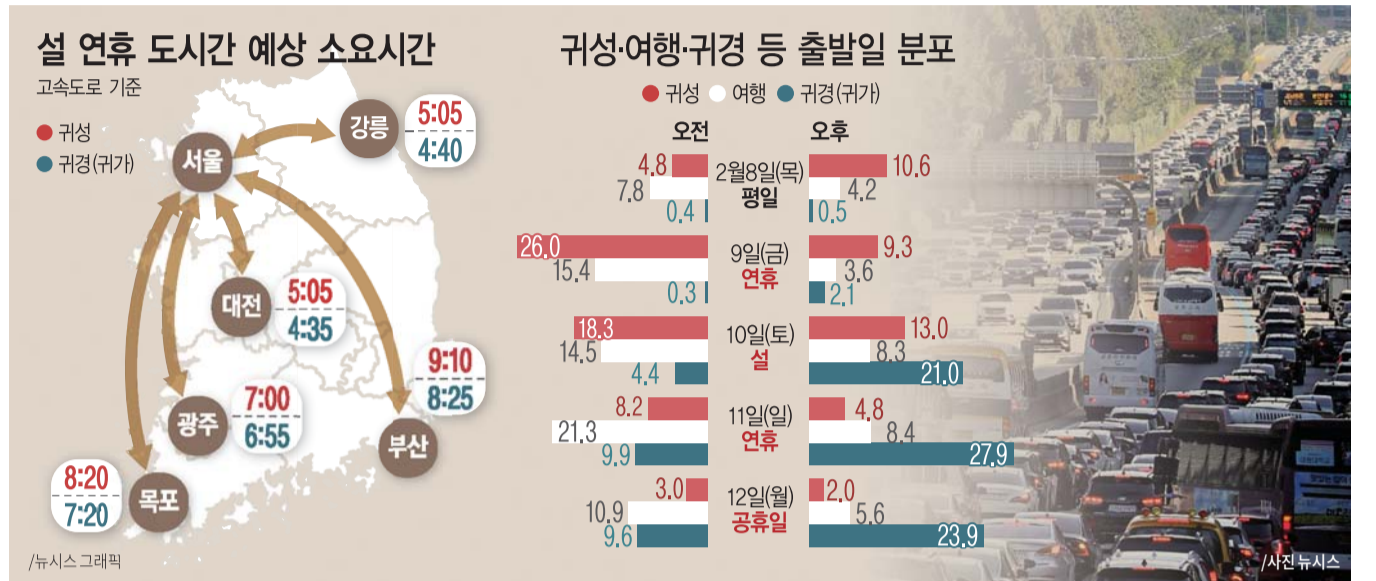
분, 서울~목포 8시간20분, 서울~광주 7  
시간, 서울~강릉 5시간5분, 서울~대전  
5시간5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.

귀경의 경우 부산~서울 8시간25분,  
목포~서울 7시간20분, 광주~서울 6시  
간55분, 강릉~서울이 4시간40분, 대전  
~서울 4시간3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 
예상된다.

귀성은 설 전날인 9일 오전에, 귀경  
은 설 다음날인 11일 오후에 집중될 것  
으로 예측된다. 귀성·귀경 및 여행객이  
동시에 몰리는 설날(10일)과 설 다음날  
(11일)이 교통혼잡이 심할 것으로 전망  
된다.

정부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도로 공  
급 용량을 확대할 예정이다. 국도 40호  
선 보령-부여 등 11개 구간(51.56km)을  
신설하고, 국도 36호선 충청내륙 1-1  
등 2개 구간(3.4km)을 임시 개통한다.

대책기간 중 갓길차로를 운영해 원활  
한 차량 소통을 지원한다. 정규 갓길차  
로 10개 노선 47개 구간(255.92km) 및 승  
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 10개 노선 24



개 구간(60.0km)을 운영한다.  
이번 설에도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 
고속도로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. 설  
연휴 기간인 9일 0시부터 12일 자정 사  
이에 전국 재정·민자 고속도로를 이용  
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.  
아울러 서울·인천·부산 등에서는 철  
도·버스를 이용해 귀경하는 시민들의

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심야 연장 운행  
이 이뤄진다. 서울시는 10일부터 11일  
까지 2일간 시내버스 및 지하철의 막차  
시간을 연장 운행한다. 자세한 사항은  
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 
한다.  
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국민부담 경  
감을 위한 3000원 이하인 중저가 간식

3~5종을 포함한 알뜰간식 10종이 판매  
된다. 묶음 간식도 최대 33% 할인판매  
된다.  
오창(남이), 치악(춘천), 음성(하남)  
등 11곳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이동형  
전기차 충전소(충전기 19기) 서비스가  
무상 운영된다.  
/김대환 기자 kdh@metroseoul.co.kr

# 손보사, 차량 무상점검... 귀성길 안전 '체크' "신권 찾아가세요" 은행 10곳 이동점포 운영

특약 미가입 고객도 기본점검 제공  
차량 고장, 사고 후 대처 요령 공유  
노후 차량일수록 반드시 점검해야

주요 손해보험사들이 귀성길 장거  
리 운전자를 위해 차량 무상 점검 서비  
스를 진행한다. 브레이크 오일, 타이어  
공기압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모  
두 살펴보는 만큼 반드시 시간을 내서  
겨우지 인근 정비소에 방문하라는 조  
언이다.

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  
은 오는 8일까지 전국 프로미카월드  
275개점에서 무상점검서비스를 진행한  
다. 오토케어서비스 특약 가입고객에는  
25가지 점검과 함께 실내 살균탈취 서  
비스를 제공한다. 특약 미가입 고객은  
12가지 점검 및 실내 살균탈취 서비  
스를 제공한다.

KB손해보험은 전국 매직카 서비스  
점을 통해 14가지 항목 대해 무상점검  
서비스를 제공한다. 주요 점검 항목은  
▲엔진오일 ▲미션오일 ▲브레이크오  
일 ▲클러치실린더 ▲주차브레이크 등  
이다.

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이라



주요 손해보험사들이 귀성길 장거리 운전자를 위해 브레이크 오일, 타이어 공기압 등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. /뉴시스

면 상시점검 서비스를 활용해 안전사고  
를 예방할 수 있다. 전국 애니카랜드  
500여곳에서 안전 관련 항목 20가지를  
점검 받을 수 있다. 아울러 현대해상 또  
한 명절맞이 무상점검 서비스를 준비하  
고 있다.

손보업계에서는 차량 고장 및 사고  
후 대처 요령도 공유했다. 가장 먼저 가  
입보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24시간 긴  
급출동 서비스에 연락해야 한다. 이어 2  
차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비상등을 켜  
고 가드레일 밖 등 안전지역으로 신속

히 대피하라는 설명이다.  
인명사고의 경우 반드시 경찰에도 함  
께 연락해야 한다. 경찰에 신고하지 않  
은 경우 뺑소니 혹은 보험사기 혐의를  
받을 수 있다.  
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"안전과  
밀접한 서비스는 특약 미가입 고객에  
게도 제공하고 있다"며 "노후 차량일  
수록 사전 점검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  
은 만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"고 말  
했다.

/김정산 기자 kimsan119@

귀성객 편의 위해 휴게소 점포 열어  
신권교환 등 간단한 은행업무 지원

설 명절을 맞아 귀성하는 고객들의  
금융편의를 위해 은행 10곳에서 이동점  
포를 운영한다. 입·출금 거래는 물론 신  
권 교환도 가능하다.

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휴기간 중 10  
개 은행(국민·신한·우리·하나·농협·기  
업·대구·부산·광주·경남)이 고속도로 휴  
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.

KB국민은행은 설날 연휴 첫날인 오  
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  
부고속도로 하행선 기흥휴게소에서 'K  
B 찾아가는 브랜치(Branch)' (이동 점  
포)을 운영한다. 현금자동인출기(AT  
M) 이용과 신권 교환 등 간단한 은행업  
무를 지원한다.

신한은행은 오는 8~9일 오전 10시부  
터 오후 4시까지 양일간 서해안고속도  
로 화성휴게소(하행선)에 이동점  
포 '뱅크드'를 설치한다.

같은날하나·우리·NH농  
협은행도 각각 경부고  
속도로하행  
선양재만  
남의광장

휴게소,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(부  
산 방향),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  
소에서 이동 점포를 운영한다. 하나·우  
리은행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,  
농협은행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 
운영한다.

경남은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  
지 함안휴게소(순천방향)에서, 부산은  
행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영  
휴게소(순천방향)에서 운영한다.

IBK기업은행은 오는 8일 오후 12시  
부터 6시까지 덕평휴게소(인천방향)에  
서, 광주은행도 같은날 오전 9시부터 오후  
4시까지 정읍휴게소(하행선)에서 이  
동점포를 운영한다.

대구은행은 오는 8일 오후 1시부터 4  
시,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동  
명휴게소(춘천방향)에서 운영할 계획  
이다.

은행권 관계자는 "설 연휴기간 동안  
신권을 준비하지 못한 고객에  
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  
권교환 행사를 진행한다"  
며 "설 연휴 가족들과 따  
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  
란다"고 말했다.

/이승용 기자 lsy2665@



##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



▲클린스만 잔류 발언에 한준희 "분석  
대상은 클린스만 자신"  
▲클린스만호, 8일 귀국...유럽파는 소속  
팀 복귀 /사진 뉴시스

▲프로농구 '비신사적 행위·KBL 비방'  
현대모비스 프림에 제재금 230만원  
▲KPGA투어 2024시즌 4월11일 개막  
전...총 22개 대회



▲'불법촬영 혐의' 황의조, 튀르키예 알  
란야스포르 임대 이적  
▲SSG 새 외인 투수 더거, 첫 불펜 투구  
...최고 151km '광' /사진 뉴시스